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도 아니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이상적인 논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 하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백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요일4:8).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배반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격성의 또 다른 면, 즉 그분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히10:30-31). 16장에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무서운 일들을 피해가고 싶다. 그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 하나님, 그 동안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 동안 악한 짓만 해왔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멸망받을 만한 탐욕을 품었는지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계시록 16장의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당신은 계시록 16장의 일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거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당신이 죄인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당하지 않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요3:16). 그분은 당신을 구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 바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3:17-19)

당신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 여러 가지 항변을 할 수도 있다.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지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뺐어요.”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럴 듯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신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몰랐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교회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들은 또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위선자들을 믿으라고 명하시지 않았다. 오직 그분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될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러한 일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다면 악의 세력들(지금은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억압되어 있는 귀신의 세력들)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 절망에 가득 찬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 계시록 16:1-4

15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이 땅 위에 쏟아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16:1)

성전에서 나는 목소리는 아마도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16:2)

다시 적그리스도 이야기로 돌아간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국가들을 평화 공존하도록 하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적과 징표를 일으키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죄에 속한 사람이다. 전세계가 이 사람을 따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는 참으로 현명하며,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선 손목이나 이마에 숫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는 금융 제도를 유럽 공동체에서 실행하게 만들 것이다.(13:7)

우리는 이미 숫자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나날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현금은 구시대의 유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데가 난다고 했다. ‘악하고 독한 헌데란 말 그대로 종기나 궤양 같은 것이 허물어져서 고름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나타났던 부작용 가운데에는 고름이 나는 헌데와 같고, 치료가 불가능한 방사선 화상이 있었다. 폭발로 인한 사망보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많았다. 방사능이 헌데를 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16:3)

바다는 오염되어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16:4)

## 계시록 16:5-7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기록하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16:5-7)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죄와 불순종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처형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선지자도 죽였다. 그들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신다. 그래서 맑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핏물이 나온다.

천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들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주님께서 저들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시니, 그것은 저들의 행악에 합당합니다”라고 말한다. 하늘의 제단에서도 소리가 있어 “주 하나님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공평하게 심판하시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불공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아니라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잔재주로 그럭저럭 살아가거나, 어떤 처지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요!”라고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당신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다시 돌려서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보여 주신다. 성경에는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했다(눅12:2).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분의 심판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의로우시다! 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분이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로 하나님을 모함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나무 열매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는 정말로 공의를 지킴니다.”(창3:4-5 참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도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이같은 재앙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계시록 16:8-11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16:8-9)

오늘날 과학자들은 오존층의 파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흥미로운가! 분무기 깡통 속에 있는 클로로플로메탄이 대기중으로 올라가면 오존층을 파괴한다. 또 초음속의 수송 비행기도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있다.

지구를 두르고 있는 이 오존층은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 오존층의 보호가 없다면 태양의 자외선이 여과될 수 없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 약 8년 이내에 지구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가 태양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화상을 입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태워질 것'이다.

대기 중에 폭발된 핵탄두는 다른 어떤 화학물질보다도 오존 가스에 더 치명적이다. 대환난 때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결국 이 오존층에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재앙은 '노바' 혹은 '초노바' 현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별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어떤 별이 15배로 커졌다가 2~3일 내에 3배로 줄어든다. 그 별은 확대되면서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진다. 어떤 별들은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

네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지구의 행성인 태양이 바로 그런 새로운 별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굉장히 뜨거운 사막에 가본 적이 있는데, 태양이 갑자기 확장된다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이다. 황폐케 하는 열기는 이 지구를 태워버릴 것이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마치 태양이 새로운 별 상태에 이르러 곧 밝게 빛난 후 어두움이 따른 것처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16:10)

사람들의 고통은 첫번째 대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발한 헌데에서 오는 것이거나, 태양의 열로 인한 온 몸의 화상과 물집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 강퍅해져 하나님을 모독한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16:11)

이상할만큼 인간이 어리석지 않은가! 재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훼방하고 그 재난을 그분의 탓으로 돌린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재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가?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면서 그 결과로 오는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 한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을 욕한다.

#### 계시록 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16:12)

큰 강 유브라데는 약 1,800마일(2,880킬로미터)이나 된다. 폭은 3~12마일(약 5~20킬로미터)이고, 수심은 평균 30피트(약 9미터)이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동쪽 제국과 서쪽 제국을 나누는 자연적 경계물이 된다. 이집트와 아스완 댐(Aswan Dam)에서 일한 적이 있는 러시아 기술자들이다시 강 건너편의 시리아에서 한 큰 댐을 건설하기도 한다. 유브라데 댐은 현재 약 3분의 2가 완공되었다. 유브라데 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그 강이 댐으로 막혀 버린다면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흥미롭지 않은가! 이 말씀이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스완 댐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 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애굽의 큰 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일 강이 마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모든 생태학적 재난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사19:5-10).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먼저 어업이 쇠하고 있다. 아스완 계획으로 인해서 소금물 유입이 늘어나 농가에 유익보다는 해를 주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생태학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한 번만 읽었더라면 그들은 댐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예언되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흥미롭다.

#### 계시록 16:13-17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사단〕의 입과 짐승〔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세계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니(16:13)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의 영은 입을 통해서 그 몸을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령이 되었다고 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영이 입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기억한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많은 경우에 큰 울부짖음이 입 밖으로 나왔다. 개구리같은 더러운 영이 사단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16:14)

천하 임금들은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이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히틀러는 세상을 거의 정복할 뻔했으나 몇 가지 사소한 이유로 정복을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그 중 하나는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히틀러가 핵무기를 미국보다 먼저 개발했다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히틀러는 귀신 섬기는 자들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히틀러를 조종했던 이 지도자들은 제3제국 멸망 후 남미로 이주했다. 그들은 지금 페루에 있는 안데스에 살고 있다. 제3제국의 배후 주동자들이었던 이 사람들 역시 사단에게 조종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 더러운 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히틀러가 악령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영향력 있는 권세자의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세상의 세 왕이 귀신 들려 그들의 군대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모으게 될 때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짐작할 수 있다.

주님은 경고하신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16:15)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시리라는 경고를 하신다. 그분은 도적과 같이 곧 오신다고 했다. “깨어서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란 이 환난이 일어날 때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주께서 교회에 말씀하셨다. “그러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눅21:36).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신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마24:42-43). 이 말씀은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16:16)

아마겟돈은 고대도시 므깃도 바로 밑에 있는 이스르엘(Jezereel) 골짜기와 에스드렐론(Esdraelon) 광야에 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16:17)

전에도 이와 똑같은 말이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요19:30)고 외치시고는 돌아가셨다.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10:18)고 말씀하셨다. 우리 죄값으로 주님은 생명을 내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다.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하늘 보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다 되었다(이루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즉 마지막 분노이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 “다 되었다”는 외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다 끝났음을 선포한다.

계시록 16:18-21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16:18)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히12:26).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번 지진은 온 세상을 흔든다. 그것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강도가 큰 지진이다.

이 지진은 온 땅을 강타할 것이다. 모든 산과 섬에도 지진이 날 것이므로 이 때에 대피소라든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16:19-21)

한 달란트는 약 100파운드(약 40킬로그램)가 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얼음 장사가 가정용 얼음 상자에 넣을 만한 얼음 덩어리를 팔았었다. 그 얼음 덩어리는 50~100파운드에 달했다. 그런 엄청난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리조나와 텍사스에는 눈이 심하게 내린다. 야구공 만한 우박이 지붕을 망가뜨리고 나무에도 떨어진다. 이 우박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 60~100파운드나 되는 큰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겠는가? 이러한 자연적인 재난들로 인해서 기후는 틀림없이 크게 바뀌어질 것이다. 성경에는 사막이 장미처럼 꽃피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건조한 곳에는 웅덩이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사35:1, 6-7)

저주가 사라졌다. 식물의 가시는 나뭇잎이 퇴화한 것이라고 한다. 선인장에 있는 가시들이 모두 잎이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새로운 활기를 얻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그 날을 고대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